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무재해 이룩

- (주)한진중공업 KBS청주 방송국 현장 -



최 근 비가 오질 않아 농부들의 고심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를 들었다. 비소식에 모두들 좋아하는데 혹시 비라도 오면 취재를 못할까 하는 걱정에 서둘러 청주로

향했다.

청주에 도착했을 때 이 현장 취재를 반기기라도 하듯 비가올 기미는 보이질 않고 사진 찍기 좋을 정도의 햇빛이 구름 뒤에서 비치고 있었다.

정문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계몽 안내문이 여기 저기 붙어 있는 이 현장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하고 있는 “KBS 청주 방송국 사옥” 신축 현장으로 2000년 9월에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초일류 기업으로 인증 받은 (주)한진중공업의 건설 현장이다.

이 곳을 총 지휘하는 “전무웅” 소장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승표” 안전과장이 있는 “KBS 청주 방송국 사옥 신축”현장은 공정을 34%의 지하 1층, 지상 9층, 옥탑 3층의 건축물로 2002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 부근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 근무를



▲ 전무웅 소장

안전 보호구 착용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곳에서는 안전모 하나 씌운다는 것조차도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월별 우수근로자 시상 및 근로자의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동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점검순찰을 강화하였다. 이제 이 현장 근로자는 어느 작업장에서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성과는 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꾸준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이 얻어낸 성과이다.

매일 아침에 아침조회를 실시하는데 전무웅 소장의 말이 끝나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각 팀장이 인솔하여 작업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각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동료의 안전을 점검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아침 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불행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며,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나아가 회사와 국가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전무웅 소장은 건설 분야의 안전은 매우 취약하다고 한다.

불안전상태는 곳곳에 잠재되어 있으며,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도 작업자 개인의 불안정한 행동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자칫



▲ 현장 안전점검

처음 한다는 이승표 안전과장은 서울과 지방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다. 전근무지인 인천 신공항에서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형식적인 교육으로 다수의 작업자들 모두에게 안전의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재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팀별, 공종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꾸준한 교육으로 실질적인 안전이 이루어 져야하며,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그 활동범위를 지원하는 것이 전무용 소장의 임무라고 한다.

안전보호구 및 안전시설은 근로자의 생명

"KBS 방송 공사"현장의 특징은 층고가 높고, 각 층의 높이도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 아파트 현장은 기준층의 높이가 4.2m로 동일하나 이 현장은 보통 5.7m에서 6.2m까지 그 높이가 달라 단일층에서 작업시에도 항상 추락의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어 잠시라도 긴장을 풀 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특히 심각한 불안감에서 오는 불안정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설재의 활용을 적절히 하여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브라켓을 이용한 외부 비계의 고정과 구조검토, 각 층별 완성 조립된 안전 발판을 3,000여장을 지급하

고, 비계가 설치되면 무조건 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일층 실내에도 반드시 벽면 중간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추락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으로 고소작업의 심적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재래형 재해는 가설재 개선과 안전교육으로 차단

이 현장에서는 추락사고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안정한 가설재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소개한다.

현장에서 보를 설치시 근로자가 보위에 올라가 작업을 수행하여 근로자나 옆에서 감독하는 안전관계자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지상에서 보를 제작 시 보의 양옆에 추락 방지를 위한 거푸집을 함께 제작 설치함으로써 근로자가 마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고 한다.

또한 추락사고 등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의 안전교육이 필수라고 한다. 위험한 작업일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작업을 하도록 교육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시설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발판, 안전망, 안전벨트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조치하도록 작업전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작업자는 작업에 임하지 않아도 됨을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다.

자율적인 안전활동 참여 유도

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장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직원이 불안정한 행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협력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집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도는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책정 지급하며, 협력업체 평가시 점수에 반영시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의 안전을 나의 안전으로 여기는 전무용 소장과 이승표 안전과장은 현장은 직원 및 근로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곳이라며, 현장 근로자를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무재해 이룩의 굳은 의지를 보여 주었다. 



① 안전순찰
② 안전교육
③ 근로자 건강검진